

研究論文

新羅 下代 體澄 禪師와 迦智山門의 개창

조 범 환*

I. 머리말	IV. 체징의 迦智山寺 駐錫과 迦智山門
II. 체징의 華嚴 공부와 南宗禪 體得	개창
III. 체징의 長谷寺 駐錫과 武州 黃壑寺 移居	V. 가지산문의 계보 확정과 그 의미
	VI. 맺음말

I. 머리말

신라 하대 迦智山門은 普照 선사 體澄(804~880)이 개창하였다. 1) 가지산문의 開山祖는 道義 선사이지만 그의 孫弟子인 체징이 가지산 寶林寺에 주석한 이후 가지산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지산문의 선승들은 도의 선사를 初祖로 하고 廉居 선사를 2조 그리고 체징을 3조로 하여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스스로 적통임을 드러냈다. 또한 체징 사후 왕실에서 그곳에 보림사라는 寺號를 내려 주어 동국 선종산문의 총본산임을 인정해 주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가지산문과 그것을 개창한 체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두어졌다. 그 결과 체징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가지산문의 社會·政

* 서강대 박물관 연구교수, 한국고대불교사 전공

1) 기왕의 많은 연구들은 道義를 迦智山門의 開創祖로 보고 있다. 아마도 體澄이 도의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가지산문의 개창조를 도의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가지산문의 개산조를 도의 선사로, 개창조는 체징 선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治的 기반 그리고 中央 王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밝혀져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²⁾

그렇지만 기왕의 연구에서 간단하게만 언급되거나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도 더러 있다. 예컨대 체징이 국내에서 화엄을 배우다가 선종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라든가,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이후 고향과 武珍州에서 활동하게 되는 배경 그리고 華嚴宗 사찰인 보림사에 주석하게 되는 까닭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³⁾ 또한 보림사가 당시 禪宗 佛敎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의 언급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체징이 출가한 이후 華嚴을 공부하다가 선으로 눈을 돌린 이유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唐나라에 유학하여 약 3년 정도 머물다가 귀국한 점, 고향 부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다 무주 지역으로 옮겨서 활동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화엄종 사찰인 보림사에 주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가지산문이 선종 불교계에서 位相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하는 것도 추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신라 하대 禪宗史에서 체징과 가지산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좀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⁴⁾

2) 가지산문의 개창 과정이나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는 李啓杓, 「新羅 下代の 迦智山門」, 『全南史學』 제7집(1993)이 유일하게 참고 된다. 그 밖에 가지산문이나 체징 선사와 관련하여 언급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성립」, 『韓國史研究』, 제7집(1972);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史學研究』, 제25집(1975);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韓國史論』, 제20집(국사편찬위원회, 1990);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이론과 실천, 1992); 순천대학교 박물관·가지산 보림사, 『迦智山寶林寺 精密地畵調査』(순천대학교박물관, 1995);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敎史研究』(小花, 1996); 金杜珍, 「불교의 변화」, 『한국사』, 11권(국사편찬위원회, 1996); 金杜珍, 「新羅下代 禪師들의 中央王室 및 地方豪族과의 관계」, 『韓國學論叢』, 제20집(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7); 金杜珍, 「新羅下代 禪宗山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韓國學論叢』, 제21집(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1998); 崔仁杓, 「羅末麗初 禪宗佛敎政策 研究」(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1998); 윤덕향 외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백산서당, 1998); 한국선학회, 『韓國禪學』, 제2집(2001);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編 「구산선문의 형성과 전개」, 『曹溪宗史: 고증세편』(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3) 기왕의 연구를 보면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검토하기 보다는 비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4) 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 기본이 되는 자료는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文이다. 보조선사의 비문 판독과 해석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의 것을 전부 참고하였다. 그

II. 체징의 華嚴 공부와 南宗禪 體得

체징은 熊州의 在地 貴族의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⁵⁾ 그런데 그가 佛家에 歸依하게 된 배경은 金憲昌의 亂(822)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⁶⁾ 즉 체징의 집안은 웅천주 都督으로 부임한 김헌창과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김헌창의 난이 실패하자 체징은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였다는 것이다.⁷⁾ 김헌창이 822년에 웅천주에서 난을 일으켰으므로 804년에 태어난 체징은 약 18세의 나이로 출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가 출가하게 된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인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사는 花山の 權法師 밑으로 출가하여 經典을 익히면서 승려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았다.⁸⁾ 화산이 어느 곳이며, 권법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출가하여 공부한 곳이 그가 태어난 지역과는 거리가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그가 興德王 2(827)년에 加良峽山 普願寺에서 具足戒를 받았다⁹⁾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원사는 지금의 충남 서산군 웅산면 용현리 성왕산에 있는 사찰이다. 따라서 그가 태어난 곳이 熊津이고 수계를 받은 곳이 현재의 보원사라면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출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권법사 아래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5년이 지난 827년 무렵에 선사는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를 받은 이후에도 그는 화엄 공부에 매우 열중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보원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후 그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¹⁰⁾ 이후 그는 설악산 億聖寺에서 주석하고 있던 廉居 禪師를

러나 해석문은 金南允 것만 올려져 있어 李智冠의 『校勘 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1994)도 참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을 쓰는 데 있어 전거로 인용한 자료의 페이지 숫자는 전부 『朝鮮金石總覽』(上)의 그것을 따랐다

- 5) 李啓杓, 앞의 논문(1993), 278쪽. 씨는 보조선사의 비문에 ‘宗姓金’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王京에서 熊津으로 낙향한 진골귀족의 후예라고 보았다.
- 6) 김헌창이 난을 일으킨 웅주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방에는 일찍부터 김주원과 같은 계통인 김인문의 직계손들이 토착하고 있어 이것이 난을 일으킨 기반으로 파악되고 있다(崔柄憲, 『한국사』 3권(국사편찬위원회, 1978), 162쪽). 이러한 견해를 따를 경우 체징 선사의 집안은 김주원과 같은 계통일 수도 있을 것이다.
- 7) 李啓杓, 앞의 논문(1993), 278-280쪽 참조
- 8) 金穎 撰,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上), 62쪽.
- 9) 金穎 撰, 위의 비문, 62쪽

찾아갔다. 그가 염거를 언제 만났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구족계를 받은 이후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관심을 두었던 화엄을 뒤로하고 선종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다.

당시 화엄을 공부한 승려들 가운데 국내에서 선종에 대하여 관심을 둔 경우도 찾아진다.¹¹⁾ 하지만 대부분은 중국으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유행하고 있던 선종을 새롭게 접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은 화엄이 불교계를 주도하던 상황에서 선종으로 눈을 돌렸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헤아리기가 힘들다. 다만 다른 선사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시 화엄은 訓誥學的인 註釋學에 빠져 있었다.¹²⁾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상의 경색과 교의상의 고집을 가져와 학파적인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화엄은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배층의 보호 아래 안주하려는 태도가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당시 선승들은 화엄에 대하여 적극적이기 보다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던 것이다. 체징도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화엄을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현실과는 괴리가 생기게 되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체징은 화산 권법사 아래서 화엄을 공부하는 동안 南宗禪에 대해서도 어렴풋이나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道義 선사는 김현창의 난이 일어난 다음 해인 823년에 귀국하여 王都인 慶州에서 선을 펴고자 하였으나 용납되지 않자 설악산 陳田寺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다. 염거가 그를 찾아가 법을 이은 것으로 보아 도의가 들어온 남종선이 설악산을 중심으로 서서히 알려지고 있었던 것 같다. 더구나 826년에는 實相山門을 개창한 洪陟 선사가 귀국하여 智異山을 중심으로 선을 전파하고 있었다.¹³⁾ 또한 慧昭는 興德王 5(830)년에 귀국하여 왕의 청으로 露岳山 長柏寺에 잠시 머물렀다가 지리산으로 들어가 쌍계사를 창건하였다.¹⁴⁾

10) 金穎 撰, 위의 비문, 62 쪽

11) 曠場山門을 개창한 智證 道憲은 중국으로 유학하지 않고 국내에서 선을 체득한 인물로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12) 高翊晉, 「新羅 下代の 禪 傳來」, 『韓國古代佛教思想史』(동국대출판부, 1989), 476쪽.

13)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담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1집(1991), 298쪽.

14) 金楨權, 「眞鑑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27 집(1999), 19 쪽에서도 흥덕왕이 혜소를 장백사에 주석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金福順 「眞鑑禪師의 생애와 불교사상에

혜소가 쌍계사를 언제 창건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830년대 후반으로 보아진다.¹⁵⁾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체징은 신라에 들어온 南宗禪에 대하여도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면 체징이 선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화엄의 경직된 모습과 현실과의 괴리 그리고 새로운 사상인 선종이 점차 신라 사회에 부상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염거 화상을 찾아간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궁금하다.

체징이 염거를 찾아간 이유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체징이 당시 남종선의 동향을 알고 있었던 만큼 염거를 주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염거는 신라 땅에 남종선을 처음으로 들어온 道義로부터 법을 받았다. 그런 만큼 체징은 도의 선사로부터 이어지는 법맥을 전해 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의 선사를 찾아갔지만 선사는 이미 열반에 들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체징은 그의 법을 이은 염거 화상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된다. 체징은 염거를 방문한 이후 그로부터 선을 익히는 데 매우 열중하였다.

A. (廉居 禪師가) 雪山 億聖寺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여니 우리 선사가 가서 그를 섬겼다. 선사가 맑게 一心을 수양하고 三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여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몸을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 염거 선사가 그 뜻과 기개에 짝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타고난 바탕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 玄珠를 부촉하고 法印을 전수하였다. 開成 2년(837) 정사에 동학인 貞育, 虛懷 등과 함께 길을 떠나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중국에 가서 선지식을 찾아보고 15주를 편력하여 그 세상도 좋아하고 하려고 힘이 똑같고 性相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다. 이에 말하기를 “우리 조사가 설한 바는 덧붙일 것 없으니 어찌 수고로이 멀리 가랴!” 하고 발걸음을 그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¹⁶⁾

관한 연구, 『韓國民族文化』, 15집(2001); 『韓國古代佛教史研究』(民族社, 2002), 239~240 쪽 씨는 이 논문에서 “장백사는 오늘날의 상주 南長寺로 왕도와 가까이 있던 왕실의 원찰로 보인다”고 하였다

15) 金福順은 혜소가 지리산 화계곡에 자리 잡은 시기를 838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金福順, 앞의 책(2002), 241 쪽.

16) 金穎 撰, 『寶林寺普照禪師彰聖塔碑』, 『朝鮮金石總覽』(上), 62쪽.

위의 기록을 보면 체징은 億聖寺에서 공부하는 동안 三界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여 목숨을 자기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몸을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삼계는 欲界·色界·無色界를 총칭하는 것으로 체징이 여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은 화엄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을 비로소 얻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종에 깊이 침잠한 것으로 보아진다. A의 기록에서 염거 선사가 그에게 玄珠를 부촉하고 法印을 전수하였다는 것은 체징의 노력이 매우 컸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그는 역성사에서 염거를 통해 불교의 새로운 사조인 선종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837년에 중국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A의 기록을 보면, 그는 동학인 貞育, 虛懷 등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갔다 같이 간 세 사람을 同學이라 한 것으로 보아 전부 염거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유학을 떠나는 경우 대체로 혼자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염거의 제자 세 사람이 함께 중국으로 간 것으로 보아 염거가 유학을 주선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비록 억측이기는 하지만, 염거는 그에게서 법을 받은 선승들을 중국에 보내어 공부하게 한 뒤 도의의 선사상을 널리 펴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체징은 염거의 의도를 헤아리고 동학들과 더불어 바다를 건너 중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도착한 체징은 선지식을 參究하여 중국 내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한다(A 기록).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신라에서 배운 선과 당나라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禪知識을 참구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특히 그는 중국 선종계를 돌아보면서 ‘性相無異’라 하였는데 이것은 融會的인 禪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 결국 그는 약 3년 만인 840년에 귀국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체징이 약 3년 정도 당나라에 머물렀지만 특정한 스승 아래서 공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⁸⁾ 그것은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다고 하는 언급이 비문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에 유학하였던 선승들은 특정한 스승을 정한

17) 李啓杓, 앞의 논문(1993), 281 쪽

18) 당시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한 선승들 대부분은 자신의 스승에게서 뿐만 아니라 여타 고명한 선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깨달음 정도를 확인 받았다. 그런데 체징은 스승을 정하지 않고 다만 고명한 선승을 찾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그로부터 법을 받을 때까지 약 10여 년 이상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선승들은 귀국한 이후에 중국 선종 불교계의 누구로부터 법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체징 선사는 오랫동안 중국에 머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리어 빨리 귀국하여 도의 선사의 선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文聖王 2년(840)에 平盧使를 따라 귀국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체징이 중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홍척과 진감 선사는 각각 실상사와 쌍계사를 중심으로 왕실의 지원 아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왕실의 주목을 받고 있던 두 명의 선승들과는 달리 그의 스승인 염거 화상은 도의의 법맥을 이었지만 왕실로부터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체징은 귀국하여 도의의 선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것을 헤아렸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는, 비록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 유학을 통하여 도의의 선사상을 전파하는데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다.

III. 체징의 長谷寺 駐錫과 武州 黃壑寺 移居

체징은 귀국한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 교화하였다.¹⁹⁾ 그가 고향을 찾아간 것은 선종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태어나서 자라고 활동한 곳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의 유학 생활이었지만 출가한 이후부터 중국 유학 기간까지 합치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고향을 벗어나 있었다. 더구나 귀국한 이후 주석할 수 있는 절이 없는 상황에서 그에게 고향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즉 체징은 고향인 웅주에서 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B. 부모가 그를 富貴로 머물게 하기 어렵다는 것과 財色으로도 붙들 수 없음

19) 金穎 撰, 앞의 비문, 62쪽. 보조선사 비문에 따르면 ‘歸舊國化故鄉’이라 하여 고향을 교화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향이라 한 것은 신라라는 큰 의미보다는 그가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을 알고 출가하여 공부할 것을 허락하였다.²⁰⁾

위의 기록은 체징이 출가하려 하자 그의 부모가 富貴와 財色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였음을 알려준다. 부귀와 재색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웅진 지역에서 체징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집안의 이러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석할 수 있는 사찰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것이 마련되는 동안 역성사에서조차 일시 머물렀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그리고 주석처를 정한 이후에는 주로 그곳에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체징이 고향 무렵에서 마련한 주석처는 바로 長谷寺로 생각된다.²¹⁾ 현재 청양의 장곡사는 체징이 개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경우 체징의 집안에서 그를 위하여 마련한 사찰로 파악된다. 그는 이곳에서 황학난야로 가기 전까지 약 20여 년 동안 주석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859년 무렵에 웅진을 떠나 무주 黃壑蘭若로 자리를 옮겼다.²²⁾ 이는 그가 중국에서 귀국한 이후 고향에서 20여 년간 활동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갔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왜 20여 년 동안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무주 황학사로 자리를 옮겼을까 궁금하다.

체징이 무주의 황학사로 옮겨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웅진주 지역의 불교계 상황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C. (낭혜화상이) 이에 북쪽으로 나아가서 종신토록 몸 붙일 곳을 찾아다녔다. 그때 마침 왕자 金旻은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면서 산중의 宰相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 바라는 바가 합치되었다. (중략) 大申(847~859) 初에 비로소 그곳으로 가서 머물기 시작하면서 말끔히 정제하였던 바, 얼마 지나지

20) 金穎 撰, 앞의 책, 61쪽.

21) 순천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1995, 17쪽에는 “그 후 20여 년 간은 스승 염거 화상이 주석하는 설악산 역성사와 조사 도의 선사의 40년 수도처인 진진사 및 출가 본사와 수계 본사가 있는 고향 태안반도 일대를 전전하며 선지를 현양하였던 모양이니 청양 長谷寺가 선사의 개창이라 하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22) 金穎 撰, 앞의 비문, 62쪽

않아 도가 크게 행해지고 절은 크게 번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진리를 묻는 사람들이 천 리를 반걸음으로 여기고 찾아오니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문도들이 번성하였다. (중략) 文聖大王이 그 교화함을 듣고 임금의 덕화를 돕지 않음이 없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어 크게 위로 하였다. (중략) (왕은) 사찰의 이름을 바꾸어 聖住寺라 하고 大興輪寺에 예속시켰다.²³⁾

위의 기록을 보면 聖住寺를 창건한 朗慧 無染(800~888) 화상은 귀국한 이후 머물 수 있는 사찰을 마련하기 위해 小白山에 隱居하고 있던 金昕을 찾아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흔으로부터 웅주 서남쪽에 있던 절에 주석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 그리고 847년 무렵에는 그곳에 가서 절을 정제하고 寺勢를 확장하였다.²⁴⁾ 또한 낭혜의 활동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聖住寺로 모여 들었으며,²⁵⁾ 文聖王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烏舍寺에서 성주사로 이름을 바꾸어 주고 興輪寺에 편입시켰다고 한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847년 이후 웅주 지역에서 낭혜의 활동과 성주사의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²⁶⁾ 사정이 이러한 만큼 성주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던 체징도 낭혜의 활동과 성주사의 위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²⁷⁾ 또한 낭혜는 왕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그곳의 지원 또한 적지 않았다.²⁸⁾ 낭혜보다 먼저 귀국하여 웅천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체징에게 있어 낭혜의 등장은 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이렇게 되자 체징은 웅주에서 더 이상

23) 崔致遠 撰, 「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76쪽.

24) 낭혜화상의 성주사 창건과정에 대해서는 曹凡煥, 『新羅禪宗研究』(一潮閣 2001), 42~54 쪽 참조.

25) 성주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과 관련하여 남포 지역의 반정부적인 세력을 교화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曹凡煥, 위의 책(2001), 106~108쪽).

26) 麗巖(862~930)은 남포에서 태어나 무량사로 출가하였다 이후 그는 성주사의 낭혜를 찾아가서 그로부터 법을 받았다(崔仁浹 撰, 「菩提寺大鏡大師玄機塔碑」, 『朝鮮金石總覽』(上), 131쪽). 이렇게 보면 웅천주 지역에서 낭혜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27) 체징과 낭혜는 이미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을 가능성도 있다. 즉 낭혜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 김현창의 난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曹凡煥, 앞의 책(2001), 31쪽). 따라서 18세에 김현창의 난과 관련되어 출가한 체징과 당시 22세의 낭혜는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8) 낭혜에 대한 文聖王과 憲安王의 배려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曹凡煥, 위의 책(2001), 103~115쪽).

머물 수 없음을 간파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아진다. 20여 년 동안 응주 지역에서 활동한 체징의 영향력 보다는 낭혜의 그것이 더욱 큰 상황에서 그는 적지 않은 좌절을 맛보았을 것이다. 더구나 낭혜의 포교활동은 체징이 오랫동안 해 오던 그것과는 달랐다고 보아진다.²⁹⁾ 이에 그와 장곡사가 그곳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자 자신을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곳을 찾았는데 바로 무진주 지역에 위치한 황학사였다. 그러면 이제 체징이 무진주 지역에 위치한 황학사로 간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체징이 고향인 웅천주에서 무주로 내려가 자리 잡은 곳이 황학사이다.³⁰⁾ 황학사가 언제 만들어진 사찰인지 또 누가 창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보아진다. 선승인 그가 황학사를 찾아간 것을 보면 그곳이 선종 사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곳에 대한 더 이상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당시 무주 지역의 정치적 상황이나 불교계의 움직임에 대해 검토하면 체징이 황학사로 간 이유를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체징 선사가 무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그가 중국 유학을 떠나던 837년부터라고 생각된다. 그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출발한 장소가 어디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 무주의 會津이나 靈巖의 상대포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張保臯가 淸海鎮(828~841)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장보고 선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체징의 경우 중국 유학을 떠났을 때 使臣의 배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보고 선단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³¹⁾ 그리고 3년 만인 840년 봄 2월에 평로사를 따라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귀국한 장소도 무주의 나루터였을 것이다. 당시 무주 지역은 국제적인 항포구가 위치한 곳이었으며 先進 文物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다. 또한 불교계의 새로운 사상인 선종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오는 곳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보면 그는 무주의 지역적 특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9) 낭혜의 禪思想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曹凡煥, 위의 책(2001), 56~76쪽 참조

30) 金穎 撰, 앞의 비문, 62쪽

31) 曹凡煥,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제4권 2호(2002), 108쪽

그렇지만 그가 웅천주에서 옮겨온 859년의 무진주는 정치적으로 사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던 張保臯는 841년 진골 지배세력의 자객인 閻長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청해진은 엄장의 감독 아래 있었으나 851년에는 청해진의 주민들마저 碧骨郡으로 이주된 상태였다. 따라서 무주 지역은 反新羅의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³²⁾

무진주 지역의 커다란 정치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불교 사상계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불었다. 예컨대, 桐裏山門의 개창이 그 한 예이다. 慧徹 선사가 개창한 동리산문은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혜철 선사는 839년 귀국하여 한 동안 雙峰寺에 머물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장보고가 죽은 이후 846년 무렵에 그는 동리산 太安寺에 주석하게 된다. 이후 혜철 선사의 동리산문은 신라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였다.³³⁾

또한 산문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지만 쌍봉사 또한 선종 사찰로서 이름을 드러내고 있었다.³⁴⁾ 그리고 무주에서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홍척 선사가 개창한 실상산문 역시 왕실의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었다. 무주 지역이 정치적으로는 혼란한 상황이었지만 선종 산문들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아오면, 무주지역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웠을지 모르지만 사상적으로는 매우 활동적이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慧徹 선사가 개창한 桐裏山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왕실의 지원이 주목된다. 당시 왕실은 중국에서 귀국한 선승들에 대하여 대우를 아끼지 않았다. 왕실이 선승이나 그들이 개창한 선종 사원에 관심을 둔 것은 당시 선종이나 선종사원이 각기 宗主的인 祖師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봉건적 主從관계를 연상케 할 정도의 큰 세력을 지니

32) 李基東, 앞의 책(1997), 226 쪽 참조

33) 동리산문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金杜珍,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風水地理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57집(1988) 참조. 씨는 혜철이 선종 산문을 개창한 직후의 사정 보다는 혜철의 제자인 광자대사 운다와 관련한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호족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그렇지만 이경복은 「羅末麗初 太安寺의 田莊과 그 經營」, 『梨花史學研究』, 제80집(2003), 122쪽에서 혜철이 동리산문을 열자 문성왕이 금살당을 설치한 것을 검토하여 왕실에 의한 전장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동리산문의 경제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34) 曹凡煥, 「新羅下代 武珍州地域 佛敎界의 動向과 雙峰寺」, 『新羅史學報』, 2호(2004) 참조

고 있었는데, 왕실은 전국 각지의 선문들을 지배체제의 회복을 위한 절호의 포섭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³⁵⁾ 따라서 서남변방 지역의 선종 산문들도 이러한 관심의 대상이었음은 이를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선종 산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은 바로 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⁶⁾ 따라서 무주 지역에 위치한 선종 산문들은 왕실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문을 통한 교역도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러한 만큼 체징은 무주로 눈을 돌렸을 것이고 당장에 선종 산문을 개창하기는 어렵자 황학사에 머물면서 선종 사상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상을 흡수하는데 주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응천주에 약 20여 년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선종 산문을 개창하지는 못하였다. 기록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 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지역에서 산문을 개창할 만큼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유력자는 없었던 것 같다. 더구나 그의 집안도 장곡사를 산문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은 어려웠던 것으로 헤아려진다. 따라서 그가 새롭게 선택한 곳이 바로 무주의 황학사였던 것이다.³⁷⁾

체징은 무주의 황학난야에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憲安王의 주목을 받았다. 아마도 황학난야에서 행한 그의 활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20여 년 동안 고향에서 선종을 널리 펴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무진주에 도착한 이후 바로 왕실의 주목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도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또한 선종을 펴는 방법이나 활동에 있어서도 그리 하였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따르자 현안왕이 長沙縣 副守 金彦卿³⁸⁾을 파견하여 차와 약을 보내고 맞이하게 하였다는 것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35) 李基東, 앞의 책(1997), 108 쪽

36) 선종 산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염두에 두면 무역상들에게 있어 산문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비록 산문자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산문 아래서 무역상들은 왕실의 권위를 등에 업은 산문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세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시장을 개척하였을 것이다.

37) 金柱珍은 체징을 황학사에 주석하도록 한 단월은 아마도 광주 지역에 거주한 지방호족 세력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金柱珍, 앞의 논문(1997), 29 쪽).

38) 金彦卿은 보림사 毘盧舍那佛 造像을 지휘하였던 金蓬宗과 동일인으로 파악되고 있다(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一潮閣, 1984), 189~190쪽. 그러나 崔完秀는 김수종과

그렇지만 그는 현안왕의 부름에 병을 핑계로 응하지 않았다.³⁹⁾ 체징이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왕실과의 관계를 경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김현창의 난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왕실의 접근에 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였던 것 같다.

IV. 체징의 迦智山寺 駐錫과 迦智山門 개창

보조 선사가 왕명에도 쉽사리 움직이지 않자 왕실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였다. 현안왕은 체징 선사에게 가지산사로 이거하여 머물러 주도록 요청하였다. 보림사보조선사 비문에 따르면, 현안왕은 동왕 3년(859) 10월에 道俗使인 靈巖郡의 僧正 連訓법사와 왕의 교지를 받은 馮瑄 등을 보조 선사에게 보내어 가지산사로 옮겨 주석하도록 청하였다.⁴⁰⁾ 체징은 현안왕의 이러한 청을 받아들여 황학사에서 가지산사로 옮겨갔다. 그러면 현안왕의 요청에 거부의 뜻을 보이던 체징이 가지산사, 즉 보림사로 이거하여 주석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림사에 대하여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체징이 왕의 명령으로 주석하게 된 보림사는 元表大德이 창건하고 머물렀던 화엄 사찰이다. 원표대덕은 景德王代 화엄종 승려였으며, 법력으로써 왕정에 협력하였다고 한다.⁴¹⁾ 그리고 가지산사에는 경덕왕 18년(759)에 동왕의 명으로 세

김언경은 동일인일 수 없다고 하였다(崔完秀, 「신라 선종과 비로자나불의 출현」, 『新東亞』, 2001년 6월호, 599-600쪽). 씨는 “전임 장사부수 김수종이 현안왕 2년에 발원하여 이 철불 주조 불사를 다시 시작한 것을 후임 장사부수인 김언경이 현안왕 4년에 마무리 지으면서 김언경이 공덕을 과시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다. 씨가 이런 추리를 한 이유는 보조선사탑비의 전반부 6행은 곧미현 현령 김원이 구양순체로 썼고 제7행 중간 이후부터는 바로 그 장사부수였던 김언경이 저수량체로 썼다는 사실을 현존 비석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언경과 김수종을 동일 인물로 파악하는 기왕의 견해는 새로운 검토를 요한다.

39) 金穎 撰, 앞의 비문, 63쪽

40) 보조선사 비문에는 ‘又遣道俗使 靈巖郡僧正連訓法師 奉宸馮瑄等 宣諭 綸旨 請移居迦智山寺’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奉宸馮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된다. 김남운은 봉신과 풍선을 각각의 인명으로 보고 있다(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3권(駕洛國史蹟開發研究所, 1992), 58쪽). 그러나 李智冠은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1994), 109쪽에서 ‘교지를 받은 풍선’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자는 후자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그것을 따른다.

워진 장생표주가 있었다. 이것은 가지산사에 대한 免稅 및 免役의 특권을 인정해주는 징표로 해석되고 있다.⁴²⁾ 이러한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은 憲康王 10(884)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체징이 왕의 명령으로 이거한 보림사는 당시 화엄종 사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이 왕의 뜻에 따라 보림사로 이거한 것은 관심을 끈다. 보림사가 화엄종 사찰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체징이 그곳으로 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원표 이후 보림사와 신라 왕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景德王의 漢化政策에 원표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경덕왕 사후에 신라 왕실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자 보림사도 왕실의 관심에서 점차 멀어지게 되었음은 당연하다.⁴³⁾ 그리고 불교계 내에서 보림사의 위상도 점차 약화되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원표가 非義相系 출신이라는 사실이다.⁴⁴⁾ 따라서 의상의 맥을 잇는 화엄 승려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림사의 승려들은 주류에서 떨어져 있었다. 더구나 선종이 들어와 화엄이 더욱 위축된 상황에서는 더욱더욱 그러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신라 왕실에서도 보림사를 화엄종 사찰로 계속해서 둘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도리어 영향력 있는 선승을 보림사로 보내는 것이 왕실로서도 유리하였다. 왜냐하면 지방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선승을 특정 사찰에 보내어 선사와 사원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보다 나았기 때문이다.⁴⁵⁾ 또한 무주 지역의 반신라적인 기운을 보림사를 통해 제어해 보고자 하는 의도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무주 지역에서 선종 사찰로 이름난 쌍봉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내재되어 있었다.⁴⁶⁾ 쌍봉사가 언제 개창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선승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활동하였으며, 동리산문을 개창한 혜철도 한 동안 그곳에

41) 元表에 대해서는 呂聖九, 「元表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研究」, 『國史館論叢』, 제48 집(1993) 참조.

42) 李啓杓, 앞의 논문(1993), 283 쪽

43) 보림사가 현강왕대까지 면세 및 면역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들어 왕실과의 관계가 밀접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왕실의 관심과는 별개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4)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民族社, 1991), 83 쪽.

45) 崔仁杓, 「新羅末 高麗初 禪宗佛教 統制」, 『加羅文化』, 제13 집(1996), 151 쪽.

46) 曹凡煥, 앞의 논문(2004), 195~197 쪽

서 활동하였다. 따라서 쌍봉사의 위상 또한 적지 않았다. 더구나 쌍봉사는 장보고 선단으로부터 적지 않은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장보고 사후 쌍봉사는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으며, 그러한 배경 때문에 반정부적인 성향을 가진 사찰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왕실에서는 황학난야에 머물고 있던 체징을 주목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이제 체징이 보림사에 간 이유를 헤아려 보자. 우선 그는 황학난야에 머물면서 보림사에 대한 사정, 즉 보림사의 위상이나 화엄승들의 활동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보림사는 화엄종 사찰로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체징은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간파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선승이 화엄종 사찰에 주석할 경우 화엄 승려들의 반대도 예상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화엄종 승려들의 사상적인 반대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점은 화엄종과 선종의 사상적 유사성은 화엄종으로부터 선종으로의 전향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었다. 言說과 超言說에 차이는 있지만 화엄종과 선종은 一切皆眞의 입장에서 모든 존재의 本來成佛을 이야기하는 공통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화엄교학을 공부한 승려들이 선종의 사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⁴⁷⁾ 체징 역시 출가하여 權法師로부터 화엄을 배웠고 화엄의 진수를 깨달았던 만큼 선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다.⁴⁸⁾ 당연히 화엄종 사찰에 가더라도 화엄을 배운 승려들을 선종으로 이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체징이 머물고 있던 황학난야는 선종 사찰이었지만 그가 그곳을 주도하거나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황학난야를 책임진 승려가 이미 있었을 것이고 체징은 단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의 사상을 퍼는 것에 주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웅주에서 황학사로 이거할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다. 체징의 제자들이 황학사보다는 보림사를 택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그는 그의 선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곳

47) 高翊晉, 앞의 책(1989), 511 쪽

48) 당시 많은 선승들이 처음에는 화엄을 접하고 후에 선종으로 돌아선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 충신토록 지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체징이 보림사로 옮겨가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도 보림사의 경제적인 측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황학난야의 경우 단월이 누구이며 경제적인 기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림사의 경우 앞서도 보았듯이 국가로부터 면세와 면역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체징은 현안왕이 정해준 보림사로 이거하였으며, 그곳에서 가지산문을 개창한 것이다. 도의에서 비롯된 법맥이 염거를 거쳐 남쪽 땅에 위치한 보림사에서 체징이 그 꽃을 피운 것이다.

V. 가지산문의 계보 확정과 그 의미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한 이후 가지산문은 왕실과 진골 지배세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세를 확장하였다.⁴⁹⁾ 진골 귀족인 長沙宅主 金邃宗은 憲安王 2(858)년 보림사 鐵造毘盧舍那佛 一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景文王 10(870)년에는 同寺에 3층 雙塔 2기와 石燈을 조성하였는데 그것은 전왕인 현안왕의 極樂往生을 빌기 위해서였다. 또한 진골 귀족인 望水宅·里南宅 主는 租 2000斛과 金 160分을 기진하였다.

보조선사는 이러한 경제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 선종 불교계에서 그 자신과 보림사의 위상을 높이고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또한 화엄종 사찰에서 선종 사찰로 그 성격이 바뀐 만큼 널리 알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보조선사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 도의 선사를 가지산문의 제1조로 염거 선사를 제2조로 그리고 체징을 제3조로 한 것이다.⁵⁰⁾ 물론 체징이 보림사에 주석하

49) 이와 관련해서는 李啓杓, 앞의 논문(1993), 283~291쪽 참조. 한편 金杜珍은 “체징이 왕실과 연고된 것으로 기록된 것은 그들이 주석한 사원의 성격에서 찾아질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 사원이 신라 하대에 왕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체징이 왕실에서 권하는 사원에 주석한 기록으로 그들과 왕실과의 밀착 관계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金杜珍, 앞의 논문(1997), 21쪽). 그러나 씨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정한 사원에 특정한 승려를 파견하여 머물도록 하였다는 것은 그 사원에 대한 신라 왕실의 영향력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0) 金穎 撰, 앞의 비문, 63쪽

는 동안에 스스로 가지산문의 제3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체징이 보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안 선종 불교계에서 가지산문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도의와 염거 선사를 추송하고 현양하는 일련의 사업을 하였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체징의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그가 열반에 든 이후 제자들이 체징을 가지산문의 3조로 표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체징의 이러한 노력은 당시 선종 산문이나 화엄종 사찰에서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이 앞 다투어 벌어진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진감 혜소는 쌍계사에 六祖影堂을 건립하여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보다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였다.⁵¹⁾ 낭해도 성주사를 창건한 이후 淨衆無相(684~762)을 모신 祖師堂을 건립하였는데⁵²⁾ 혜소의 영당 건립과 그 의도를 같이 하고 있다. 더구나 당시 화엄종단에서는 조사 추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⁵³⁾ 조사 추모 결사는 왕실의 권위를 재정립하고 위축되어 가는 화엄종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⁵⁴⁾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이 체징 선사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체징은 신라에 남종선을 처음 전래한 도의를 개산조로 하고 염거를 2조로 하여 가지산문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보조선사가 가지산문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염거로부터 법을 받고 또한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왔지만 강원도에서는 잠시 머물렀을 뿐이다. 도리어 염거의 법을 이은 선승들 가운데서 홍각선사 利觀이 주목되는 데 그는 景文王 13(873)년에 역성사에 주석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⁵⁵⁾ 이렇게 보면 도의 선사의 맥은 강원도에 위치한 역성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승들에게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진전사나 역성사에서 도의의 법을 이어 받은 선승들은 스스로를 도의의 법을 이은 승려들이라 자임하였을

51) 金楨權,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제27집(1999), 34쪽.

52) 曹凡煥, 앞의 책(2001), 80~81쪽

53) 崔源植, 「新羅下代の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제49집(1985), 20쪽 및 정병삼, 「9세기 신라 佛敎結社」, 『韓國學報』, 제85집(1996) 참조

54) 정병삼, 위의 논문, 225쪽

55) 權惠永, 「新羅 弘覺禪師碑文의 復元試圖」,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敎文化思想史』上(伽山文庫, 1992), 643쪽

것이다.⁵⁶⁾ 이렇게 볼 때 체징은 그가 도의의 법맥을 이은 적통임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 이에 가지산문은 도의를 제1조로 삼고, 염거를 2조 체징을 3조로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가지산문이 여러 선종 산문 가운데서 적통이라는 것과 도의의 법을 이은 유일한 선종 산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록 여러 선종 산문 가운데서 개창 시기가 늦기는 하였지만 체징은 도의의 법을 이은 적통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왕실로부터도 협조를 얻어 냈다.

체징이 열반에 든 이후 3년이 지난 헌강왕 9(883)년에 제자 義草 등이 行狀을 지어 올리며 建碑樹塔을 조정에 청하였다. 왕은 체징의 시호를 普照禪師라 하고 塔號를 彰聖塔이라 하며, 사호를 寶林寺라 내려 주었다. 이것은 가지산문이 동국 선문의 총본산임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六祖大師 慧能이 주석하던 韶州 曹溪山 寶林寺가 중국 선종의 총본산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가지산문은 왕실의 권위를 철저히 등에 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대내외적으로 가지산문을 동국 선문의 총본산으로 하여 남종선의 맥을 이은 적통으로 거듭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당시 체징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록이 참고된다.

D. 그 후 구도승의 뱃길 왕래가 이어지고 나타난 바의 방편이 眞道에 융합하였으니, 그 조상들을 생각하지 않으랴. 진실로 무리가 번성하였도다. (중략) 고국에 돌아온 사람은 앞서 말한 北山의 道義와 南岳의 洪陟, 그리고 조금 내려와 大安寺의 慧徹國師, 慧目山の 玄昱, 智力の 聞, 雙谿寺의 慧昭, 新興의 彦, 涌巖의 體, 珍無의 休, 雙峰寺의 道允, 崛山寺의 梵日, 兩朝 國師인 聖住寺의 無染 등인데, 菩提의 종사로서 덕이 두터워, 衆生의 아버지가 되고, 도가 높아 왕자의 스승이 되었다.⁵⁷⁾

崔致遠이 찬술한 지증대사 비문에는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들

56) 이와 관련하여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敎史研究』(小花, 1996), 68~76쪽.

57) 崔致遠 撰, 「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朝鮮金石總覽』(上), 90쪽.

이 열거되어 있다. 도의 선사를 시작으로 하여 웅주에서 활약하며 양조 국사가 된 낭혜 선사 無染까지 망라되어 있다. 대체로 그들은 산문의 개산조이거나 혹은 산문 개창자들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新興의 彦과 같이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는 禪宗山門과 선사도 보인다.

지증대사의 비문이 완성된 것은 진성여왕 7(893)년이다. 체징 선사의 비문이 884년에 완성되었으므로 약 10여 년이 지난 이후의 기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징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가지산문의 개산조가 아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도의 선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체징을 거론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치원은 北山의 도의라고 하여 체징이 개창한 가지산문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즉 도의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원도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가지산 보림사가 차지하는 위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갔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이상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현강왕대까지는 보림사가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면세와 면역의 특권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체징의 제자들 가운데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보조선사의 비문에는 英惠와 淸奘 등 800여 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문인인 義車 등도 보인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도리어 체징의 제자로 迥微(864-917)가 주목되는 데 그는 왕건과 일찍이 결연하였다.⁵⁸⁾ 그러나 그는 弓裔의 불교정책에 반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⁵⁹⁾ 사정이 이렇게 되자 보림사 출신의 선승들 가운데 고려 왕건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선승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보림사에 관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에서도 이러한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짐작된다. 또한 보림사가 後百濟 甄萱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이후 더욱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58) 迥微와 관련하여는 沈在明, 「高麗 太祖와 四無畏大士: 太祖의 結緣意圖를 중심으로」, 『高麗太祖의 國家經營』(서울대 출판부, 1996), 406쪽 참조

59) 沈在明, 앞의 논문(1996), 416 쪽

그리고 고려 중기에 이르게 되면 가지산문의 중심 도량이 보림사가 아닌 청도 靑門寺로 변경되었던 것 같다.⁶⁰⁾ 결국 보림사는 체징이 열반에 든 이후 그의 제자들이 선종계에서 보림사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속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하대에 활동한 체징 선사와 그가 개창한 가지산문이 당시 선종 불교계에서 차지한 위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체징 선사는 도의 선사의 법맥을 이었으며, 장흥 보림사에 주석한 이후 그곳을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으로 키웠다. 또한 그가 열반에 든 이후 왕실로부터 동국 선종의 본산임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정리한 바를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체징은 김현창의 난이 실패하자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가하였다. 화산의 권법사로부터 화엄을 배운 이후 염거가 주석하고 있던 강원도 역성사로 갔다. 그가 화엄을 뒤로하고 선으로 관심을 돌린 이유는 불교계의 새로운 사조인 禪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염거로부터 법을 받은 이후 중국 유학을 떠났다. 그러나 중국 유학에서 그는 신라에서 배운 선과 중국의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특정한 스승도 정하지 않은 채 3년 만에 돌연 귀국하였다.

귀국한 이후 고향 부근에 위치한 장곡사에서 약 20여 년 동안 선을 폈다. 그러나 그의 노력과는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847년 무렵 웅천주 서남쪽에 위치한 성주사를 중심으로 활약한 선승인 낭혜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말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그렇게 되자 그는 그곳을 떠나 무주의 황학사에 머물면서 열심히 선종 전파에 주력하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현안왕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화엄종 사찰이었던 보림사에 주석하게 되었고 그곳을 기반으로 하여 선종계에서 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가 왕의 명으로 주석한 보림사는 원표 대덕이 창건한 화엄종 사찰로 이름난

60) 순천대학교 박물관 편, 앞의 책(1995), 18 쪽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간 이유는 그의 선사상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장소와 종신토록 지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왕실로부터 면세와 면역이 주어진 사찰이었으므로 선종 산문으로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의의 선사상을 활짝 꽃피웠다

그는 선종계에서 그의 위상뿐만 아니라 가지산문의 위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도의 선사를 제1조로 하고 염거를 제2조로 하는 계보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 선종 불교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록 산문의 개창 시기는 늦었지만 도의의 법을 이은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 더구나 진전사와 역성사 출신의 승려들이 스스로를 도의의 법맥을 이은 선승들이라 자부하고 있었기에 보림사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은 열반에 든 이후 점차 빛을 잃어 갔다. 그것은 고려 초부터 중기에 이르기까지 보림사에 관한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맥을 같이한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라 하대 선종 불교계에서 체징과 가지산문이 차지한 위상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朝鮮金石總覽』(上). 1919.
- 高翊晉, 「新羅 下代の 禪 傳來」. 『韓國古代佛教思想史』. 서울: 동국대출판부, 1989.
- 權惠永, 「新羅 弘覺禪師碑文의 復元試圖」. 『伽山李智冠스님 華甲紀念論叢 韓國佛教文化思想史』(上). 서울: 伽山文庫, 1992.
- 金杜珍, 「羅末麗初 桐裏山門의 成立과 그 思想: 風水地理에 대한 再檢討」. 『東方學志』 제7집, 1988.
- 金杜珍, 「道義의 南宗禪 도입과 그 思想」. 『江原佛教史研究』. 서울: 소화, 1996.
- 金杜珍, 「불교의 변화」. 『한국사(11)』.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6.
- 金杜珍, 「新羅下代 禪師들의 中央王室 및 地方豪族과의 관계」. 『韓國學論叢』 제20집, 1997.
- 金杜珍, 「新羅下代 禪宗山門의 社會經濟的 基盤」. 『韓國學論叢』 제21집, 1998.
- 金相鉉, 『新羅華嚴思想史研究』. 서울: 민족사, 1991.
- 金煥泰, 「九山禪門 形成과 曹溪宗의 展開」. 『한국사론(20)』. 과찬: 국사편찬위원회, 1990.
- 金楨權, 「眞鑑禪師 慧昭의 南宗禪 受容과 雙谿寺 創建」. 『湖西史學』 제27집, 1999.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編, 「구산산문의 형성과 전개」. 『曹溪宗史: 고종세편』. 서울: 대

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순천대학교 박물관·가지산 보림사, 『迦智山寶林寺: 精密地表調査』. 순천: 순천대학교박물관, 1995.

沈在明, 「高麗太祖와 四無畏大士: 太祖의 結緣意圖를 중심으로」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 서
울대 출판부, 1996.

呂聖九, 「元表의 生涯와 天冠菩薩信仰研究」. 『國史館論叢』 제48집, 1993.

윤덕향 외, 『호남의 불교문화와 불교유적』. 서울: 백산서당, 1998.

이경복, 「羅末麗初 大安寺의 田莊과 그 經營」. 『梨花史學研究』 제30집, 2003.

李啓杓, 「新羅 下代의 迦智山門」. 『全南史學』 제7집, 1993.

李基東, 「新羅 金入宅考」.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서울: 一潮閣, 1984.

李基東, 「羅末麗初 南中國 여러 나라와의 交涉」 『歷史學報』 제55집 1997.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新羅篇). 서울: 가산문고, 1994.

정병삼, 「9세기 신라 佛教結社」. 『韓國學報』 제85집 1996.

曹凡煥, 『新羅禪宗研究』. 서울: 一潮閣, 2001.

曹凡煥, 「張保臯와 禪宗」. 『STRATEGY21』 4 권 2 호, 2002.

曹凡煥, 「新羅下代 武珍州地域 佛教界의 動向과 雙峰寺」. 『新羅史學報』 제2집, 2004.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성립」. 『韓國史研究』 제7집, 1972.

崔柄憲, 「羅末麗初 禪宗의 社會的 性格」. 『사학연구』 제25집, 1975.

崔完秀, 「신라 선종과 비로자나불의 출현」. 『新東亞』, 2001년 6월호.

崔源植, 「新羅下代의 海印寺와 華嚴宗」. 『韓國史研究』 제49집, 1985.

崔仁杓, 「新羅末 高麗初 禪宗佛教 統制」. 『加羅文化』 제13집, 1996.

崔仁杓, 「羅末麗初 禪宗佛教政策 研究」.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1998.

추만호, 「심원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비의 금석학적 분석」. 『역사민속학』 제1집, 1991.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연구』. 서울: 이론과 실천, 199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III). 서울: 駕洛國史蹟開發研究所, 1992.

洪承基, 「後三國의 分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韓國史市民講座』 제5집, 1989.

● 투고일 : 2005. 1. 25.

● 심사완료일 : 2005. 8. 26.

● 주제어(keyword) : 체징(Chejing), 보림사(Temple Borim), 가지산문(Kaji-san School),
선종(Zen Buddhism), 화엄(Flower Garland), 신라 하대(the late Shilla),
성주사(Temple Sungju), 황학사(Temple Hwanghak), 헌안왕(King Hunan),
도의(Doui)